

## 일시 조정후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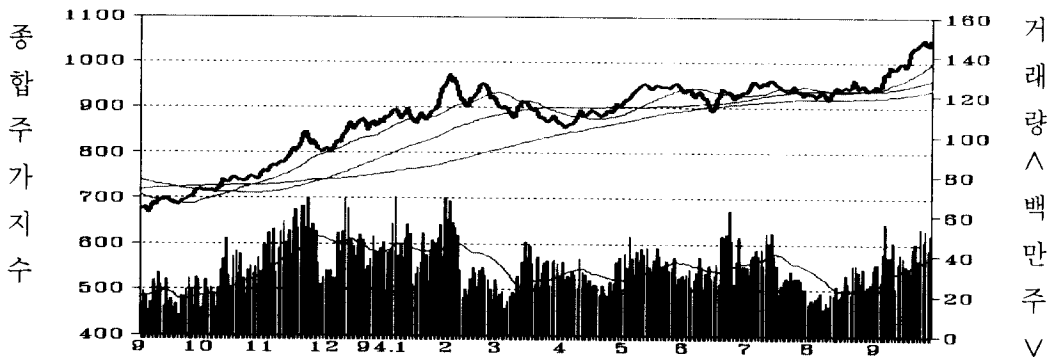
朴鍾坤\*

### 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행진

9월 초 단기적인 조정이 마무리된 후 주식시장은 16일 1천 포인트를 넘고 21일에는 1천 50 포인트를 돌파하여,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보였다. 주가지수가 1천 포인트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89년 4월 1일 이후 약 5년 6개월만의 일이다. 또한 지난 싸이클의 최저치를 기록한 1992년 8월 21일(471.61 포인트) 이후 약 2년만의 일이다.

### 블루칩(Blue Chips) 주도 장세

9월의 상승세는 주로 주가가 크게 오른 대형 우량주, 즉 블루칩과 低PER주 등이 시장을 주도하였다. 특히, 세계 반도체 시장의 특수 혜택을 받는 삼성전자와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 예정인 포철 및 한전 등 삼두 마차의 역할이 가장 컸다. 주가지수가 1,000 포인트를 넘자 한 때 증권 당국에서 주가를 진정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실적이 뒷바침되는 대형 우량주의 상승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외국어대학교 경영학 석사, 증권·금융 전공.

## 일시적인 조정후 재상승

우량주를 중심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던 주식 시장이 9월 말에 와서는 주가지수가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주도 블루칩 대열에서 그동안 상승에서 제외되었던 중저가 대형주 및 실적주로 전환된 양상이다.

그러나 최근의 장세 흐름으로 봐서는 대세 상승의 전형적인 과정으로 여겨지며, 우량주 및 低PER 주 등 기존의 주도주가 쉽사리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단지 최근 주식 시장이 크게 상승하였고, 고객예탁금 등 증시 에너지의 추가 보강 없이 가파른 상승을 지속한 관계로 일시적인 조정이 예상되는데, 조정 국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기존 주도주의 향방에 따라 조정의 기간과 폭이 달라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증시가 조정 국면을 맞더라도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경제 회복과 함께 당분간 급격한 통화 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증권계의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 확대 계획이 10월 중반 이후 그 윤곽이 들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1월 초 파리에서 열릴 OECD 금융시장위원회의 옵저버 참여 자격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 확대문제에 대한 밝혀야 한다.

## 우량주 및 테마주에 투자

10월중 추석 자금 환수 과정에서 일시적인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만 최근 우리 경제 및 증시 추세를 볼 때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조정 과정에서 우량주(Blue Chips) 및 低PER주의 조정 폭이 비교적 크고, 저가 우량주 및 금융주 등으로 순환매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우량주의 비중은 여전히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가 사이클에서 볼 때 어느 한 상승 사이클에서 한번 결정된 주도주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량주의 경우 장래 성장성 면에서나 현재의 수익성이 타종목에 비해 우수하며, 10월 말경 구체화 될 외국인 주식 소유 한도 확대는 이들 우량주의 추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우량주의 경우 현재 외국인 간의 장외시장(OTC)에서 현재 시장가격에서 보통 10%에서 50%의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단기적으로 10월 주식 시장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으로는 우량주외에 내년부터 크게 확대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주와 원화 절상에 따른 혜택 수혜주, 자산 재평가 유망기업 및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유향주 등을 들 수 있다.♣